한국임업진흥원

월간 해외산림투자 정보

2017년 특별호(2) :
글로벌 임업업계의 주요 정책동향

Kofpi 한국임업진흥원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고객과 함께하는 임업파트너

Kofpi for U

글로벌 임업시장의 주요 정책 동향

Contents

Ⅰ. 목재 거래 관련 주요 정책

Ⅱ. 기후 협약 관련 주요 정책

Ⅲ. 산림인증 관련 주요 정책

Kofpi 한국임업진흥원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Ⅰ. 목재 거래 관련 주요 정책

■ 머리말

정부 산림정책 방향은 산림과 임산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영국과 미국 정부의 여러 정책적 변화로 인해 임산물 무역거래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불법 벌채를 줄이고 다양한 산림인증 활성화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산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하여 산림 관련 정책들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 특별호에서는 최근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한 1) 목재시장에서의 정책변화, 2) 기후협약 관련 정책동향, 3) 산림인증 분야의 정책동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도 간략하게 정책 동향에 대해서 다뤄봤지만, 우리에게 산림과 목재가 제공하는 혜택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사업의 주체인 민간에게도 경제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본 특별호를 통하여 글로벌 임업 시장의 거래 및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연관된 분야에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목재 거래 관련 주요 정책 동향*

▣ 대서양 자유 무역 시장

2014년 9월 캐나다와 EU는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CETA: 포괄적 경제 무역 협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결국, 유럽 의회는 2017년 2월 17일 CETA를 승인했다. 또한, 2016년 10월 EU와 미국 간 제 15차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범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협상이 진행 되었고, 2017년 5월 TTIP의 미래 무역 협정을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

TTIP와 CETA 모두 10% 관세가 적용되는 2차 목재 생산제품 분야인 붙박이 가구소재, 베니어, 합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세 폐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재목과 다른 목재제품에 대한 관세는 많은 부분 폐지된 바 있다.

TTIP 및 CETA 역시 최근 자유무역협정 등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자국 이익 중심의 우경화 물결에 따라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Source: FAO Forest Products Annual Market Review 2016~2017

Ⅰ. 목재 거래 관련 주요 정책

▣ 미국과 캐나다 정책 변화

미국과 캐나다 간의 Softwood Lumber Agreement (SLA: 침엽수 협약)은 2015년 10월 12일에 만료되었다. SLA는 수 십년 동안 이어진 양국 간의 목재 무역 관련 관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관련 내용은 지난 호에서 다룬 바 있다.)

2017년 4월에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목재에 3~24%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세율은 지역별로 생산자들이 받는 보조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의해 정해진다. 가장 높은 세율은 주로 캐나다 서부 지역에 부과된다. 참고로, 2016년에는 $56.6억에 상당하는 캐나다산 목재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The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전미주택건설협회)는 신규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6.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캐나다 목재기업 Resolute와의 싸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사진 속 가운데 인물은 캐나다 그린피스 대표 Joanna kerr

환경분쟁 사례

환경단체와의 소송 전도 캐나다 목재 기업에게는 큰 이슈이다. 2012년 12월부터 Resolute Forest Products, Inc.와 그린피스는 순록 보호, Resolute社 산림의 인증문제, 원주민 보호 정책 등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있어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Resolute社는 그린피스의 악의적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고객들이 자사의 목재상품이 아닌 경쟁사의 상품을 구매하게 되어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린피스에 대응하며 발생한 비용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3년 Resolute社는 캐나다에서 그린피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6년 5월에는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미국 법원에서도 그린피스를 고소하였다. 아직까지도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브렉시트에 따른 정책 변화

2016년 6월 23일에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다수의 영국인들은 영국의 EU를 탈퇴에 찬성했다. 그리하여 영국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017년 3월 29일부로 브렉시트로 불리는 EU 탈퇴 수순을 밟았다. 탈퇴 시한은 2년이며, 기한 연장은 EU 회원국이 만장일치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Ⅰ. 목재 거래 관련 주요 정책

브렉시트는 목재 관련 무역과 정책에 있어 영국 뿐만 아닌 EU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EU 예산의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탈퇴 시,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공동농업정책),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유럽 지역발전기금), 연구기금인 Horizon 2020 등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재시장에 있어서도, 영국은 독일에 이어 EU에서 2번째로 큰 목재 수입국이었고(2016년), EU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가장 큰 수입국이었다. EU와 영국 사이에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한 연구결과(Ebell, 2017년)는 영국과 EU 간의 목재거래량이 22%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장기적으로 브렉시트로 인한 가격변화가 업계 전반에 거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영국은 그 동안 EU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FLEGT: 산림 관리 및 거래 행동 계획)를 통해 EU와 열대목재수출국 간의 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s의(VPAs: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 협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EU Timber Regulation(EUTR: EU 목재법안) 도입을 선도하였다. 일례로, FLEGT 인증을 발행하는 유일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게 EU 내 최대 수출국은 영국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으로 인해 당장 이런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VPA 협상에서 영국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는 미지수다. EU 내에서는 영국이 주도하던 시장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독일이 주도하는 체계와 규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EU 산림법 정책 변화

EU FLEGT* Action Plan이 14년 동안 시행되는 동안,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수출 목재에 대한 합법적인 허가 시스템 개발에 파트너 국가를 참여시키는 VPA** 협상이다. 2017년 5월 현재, 열대지방 15개국이 VPA 협상에 참여하고 하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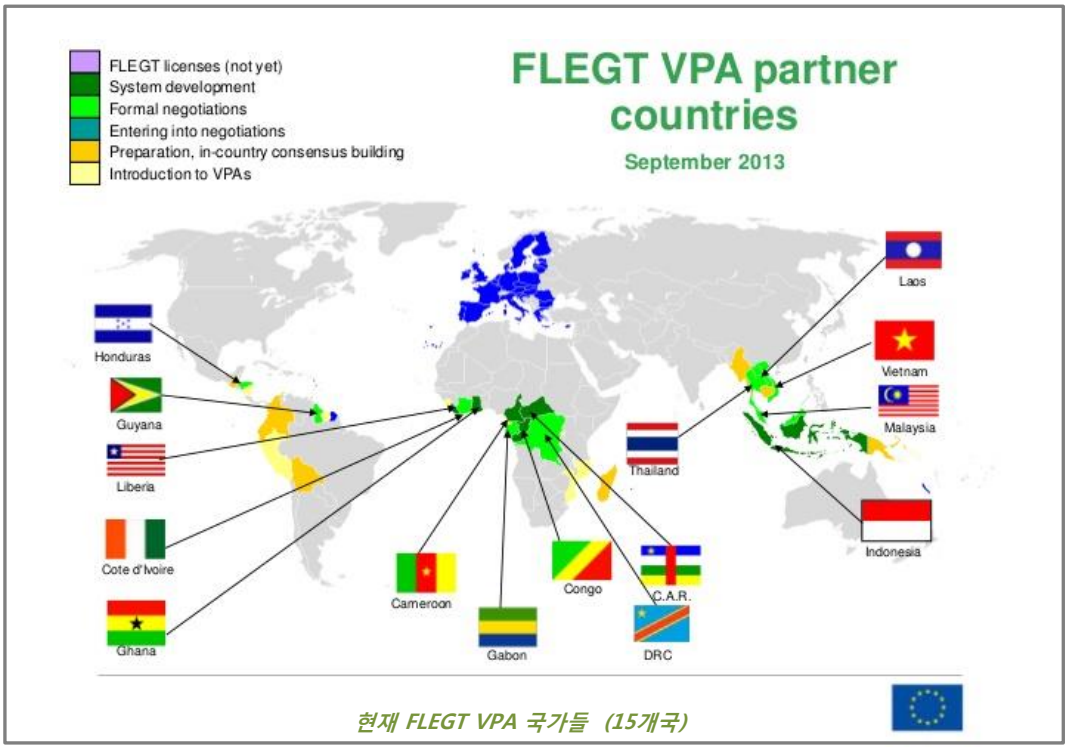
EU로 들여오는 열대 목재의 33%를 공급하는 인도네시아는, 2016년 5월, FLEGT 인증을 발급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17년 2월 22일, 유럽 위원회는 27개의 회원국이(슬로바키아를 제외한 현재 모든 회원국) EUTR (유럽 목재규정)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EUTR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나, 위반한 사례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루마니아는 2016년 9월 EUTR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었다.

스웨덴 법원은 2016년 11월 미얀마에서 목재를 수입하는 회사가 EUTR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으로 새로운 법적 선례를 남겼다. 네덜란드도 2016년 11월 카메룬 목재 수입업체에 대하여, EUTR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2016년부터 일부 회원국에서 실시된 EUTR 집행점검 건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2016년 상반기에 EUTR의 실행을 담당하는 두 부처를 통해 103회의 점검을 시행했다. 네덜란드 관할 당국은 2016년 3월에는 대대적인 점검을 통하여 약 150명의 관계자의 EUTR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3년 중반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독일 관할 당국은 약 370명의 목재 관계자를 점검하였고, 덴마크 관할 당국도 2016년에 46회의 점검을 시행했다. 핀란드의 경우, 2015년 3월에서 2016년 11월 사이에 수입목재에 대한 32회의 점검, 국내목재에 대한 19회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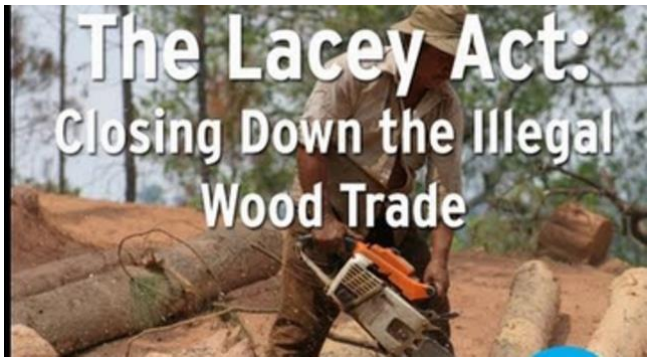


현재 FLEGT VPA 국가들 (15개국)

*FLEGT는 세계적인 불법 벌채를 줄이고 불법목재로 생산된 목재, 가구의 무역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도입된 산림법
**자발적 파트너십 협정은 EU와 목재생산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양자협약으로,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만 거래함

유럽 위원회는 2017년 1월 EUTR 적용범위를 인쇄책자, 신문, 악기 및 목재 프레임이 있는 좌석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더 상세한 법안 초안이 공개 협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공개될 것이다.

EUTR의 20조는 모든 회원국이 지난 2년 동안 EUTR을 어떻게 시행 하였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각 회원국의 보고서는 유럽위원회에 제출되며, 제출자료의 요약은 EU의회에 제출된다.



객들의 요청에 의한 건축, 디자인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Lacey Act 요건을 무시하고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목재들을 사용하는 건설업체가 미국 내에 많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미국 Lacey법 정책 변화

미국의 Lacey 법안은 1900년에 제정되어, 야생동물, 어류 및 식물 등을 불법적으로 채취, 소유, 운송 및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2008년 일련의 개정 과정을 거쳐, 이 법안은 여러 산림 및 목재 제품을 포함한 특정 식물 및 식물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더욱 확대되어, 2016년 11월부터 미국으로 반입출되는 모든 식물 및 식물 제품은 Lacey Act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건 충족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도 기존의 제품별 상이하게 문서 위주로 관리되었던 부분이 2018년 부터는 디지털 통합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 CIS (특히 러시아 중심) 정책 변화

러시아의 천연자원환경부는 2016년 러시아 산림 보호와 재건을 위한 파격적인 규정 개정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산림과 산불방지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었는데, 병해충과 도시외곽 산림에 대한 연구계획도 포함되었다.

이로서, 러시아 정부는 산림지역의 개발과 임업분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러시아 2016년 목재 생산량은 지난 20년 중 최대치인 2.14억m3를 기록했다. 러시아 정부는 2050년까지 목재 생산량이 5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임업분야의 GDP 내 비중을 250% 증가시킬 것을 선언했다. 목재 생산(벌채) 면적을 2020년까지 15% 상승시키고, 2030년까지 50%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Ⅰ. 목재 거래 관련 주요 정책

▣ 바이오 매스 관련 정책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EU에서 소비되는 재생 에너지의 61%를 차지한다. 목재 바이오매스를 살펴보면, 유럽으로 공급된 전체 바이오매스 공급 원료의 70%가 산림 영역에서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2000년 이후, 유럽에서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소비는 두 배나 상승하여, 2014년에는 105.5백만 톤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EU 회원국의 전망에 따르면, 바이오 에너지 소비는 2020년까지 적어도 140백만 톤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11월 유럽위원회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Sustainable Biomass Partnership은 2016년 12월에 Sustainable Biomass Program (SBP)로 그 이름을 바꿨고, SBP은 최근에 100개의 기준들을 재정립하였고,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인정하는 인증서는 영국와 덴마크에서 인정받았다.

또한, SBP는 그 인증서의 기준이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규제 시스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SBP는 최근에 바이오매스 공급망에 대한 디지털 기록 추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억제를 수치로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Certificate

NEPCon
Preferred by Nature™

SBP
Sustainable Biomass Program

NEPCon (SBP-01) hereby confirms that the Sustainable Biomass Program (SBP) Framework processes at

NewFuels RSEZ SIA

Attrivosanas alley 169A
Rezekne
LV4604
Latvia

have been assessed and certified a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Standard #2 V1.0 - Verification of SBP-compliant feedstock
Standard #4 V1.0 - Chain of Custody
Standard #5 V1.0 - Collection and Communication of Data

as of the date of issue of this certificate.

The certificate is valid from 05-05-2016 to 04-05-2021
Certificate version number: 30-06-2017-(01)

Scope of certificate
Production of wood pellets, for use in energy production, at Rezekne, Latvia and transportation to Riga, Liepaja, Ventspils and Klaipeda harbours. The scope of the certificate does include Supply Base Evaluation with primary and secondary feedstock from Latvia.

Certificate registration code
SBP-01-16

Justpās Janulaitis
Operations Director
Filosofi 31, Tartu
Estonia

The Sustainable Biomass Program Framework of Standards can be found at https://sbp-cert.org/.

The assessment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SBP Standard 3, Certification Systems.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Bodies, Version 1.0, 26 March 2015.

SBP 인증서는 위와 같은 모습이고,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 우드펠릿 공급망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Ⅱ. 기후 협약 관련 주요 정책

■ 기후협약과 탄소배출 관련 정책 동향

▣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시장 정책

파리기후협약의 목적은 21회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시작된 환경보호 과제를 이행하여 기후변화를 최대한 막는 것이다. 파리협약은 온실가스(GHG) 배출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에서 2016년 11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년 5월 31일에는 참여국이 147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집권한 미국은 파리기후협약 탈퇴 의사를 밝혔다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키고, 탄소배출권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파리기후협약에서는 산림벌채 및 산림유지 등의 토지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소하는 것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00개국 이상에서 토지활용 방식을 파리기후협약의 정책에 따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2018년까지 산림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될 것이며, 여기에는 기존의 UN 온실가스 배출 감소 프로젝트인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탄소감소방안 및 관련 보고체계 개선 등이 상세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Green Climate Fund(GCF: 녹색기후기금)는 UNFCCC(기후변화협약) 산하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한다. GCF에는 REDD+ 추진을 위한 기금도 마련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대표적인 산림 분야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인 REDD+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REDD+를 위해 모금된 기금은 약 $87억 수준이다.



녹색기후기금 현황을 보면 대부분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기여 비율이 현저히 높으며, 우리나라는 12년도에 GCF사무국을 유치하였다.

Ⅱ. 기후 협약 관련 주요 정책

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는 것과 신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도입에 합의하였다. 2016년 7월 20일 유럽연합 위원회는 새로운 2030년 기후 에너지 체제 확립을 위하여, 토지이용 방법, 토지용도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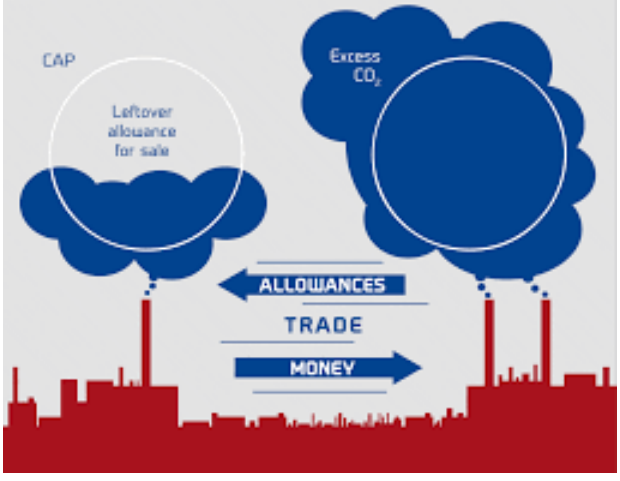
이 제안에는 토지에서 배출된 탄소와 동일한 양의 탄소를 대기권에서 줄이는 것에 대한 모든 EU 회원국의 선언이 포함되었다. 제안된 법안은 회원국들이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발생된 탄소 배출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 이사회와 의회는 EU Emission Trading System(ETS: 탄소배출 거래 시스템)의 개선된 법안을 고안 중에 있다. EU ETS을 통하여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즉 21%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2015년 말까지 이미 탄소 배출량의 24% 감소시켰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부 전문가는 2018년-2019년 기간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8.78유로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 ETS의 경우 유럽 27개국에 집행중임*
- *탄소배출 총량 제한의 경우 매년 1.74% 씩 감소되고 있음*
- *탄소 배출 허용량의 경우 경매로 거래 되어짐*
- *11,000개의 발전소 등이 거래에 참여함*



▣ 친환경 건물에 대한 정책 동향

유럽연합위원회는 2014 Communication on Resource Efficiency Opportunities in the Building Sector (건설분야의 자원 효율화 논의)에서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측정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유럽연합위원회는 2015년 관련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고 2016년 7월에는 EU 사무용, 거주용 건물의 친환경성 측정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또한 EU는 탄소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대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다. The EU Energy Efficiency Directive(EU 에너지 효율성 위원회) 에서는 2017년 4월 30일까지 회원국들에게 기존 건물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 장기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EU는 'BUILD UPON' 프로젝트를 회원국들에게 지시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13개국에서 100건이 넘는 행사에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Build Upon 행사가 유럽에서 활발히 진행 중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LEED :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 프로그램)는 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 미국 녹색 건물 협회)에서 개발한 평가 인증 프로그램이다. 2016년 4월 USGBC는 불법목재를 제재하며 합법 승인을 받은 목재만을 건물에 사용하는 LEED의 새로운 제안을 소개했다. 시범운영 중인 Alternative Compliance Path(대체 준수 방안)의 경우, 다양한 산림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증제도를 파악해 합법상 여부 정보도 제공한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진행되지만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스위스, 영국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EUTR 등 다른 체계에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개선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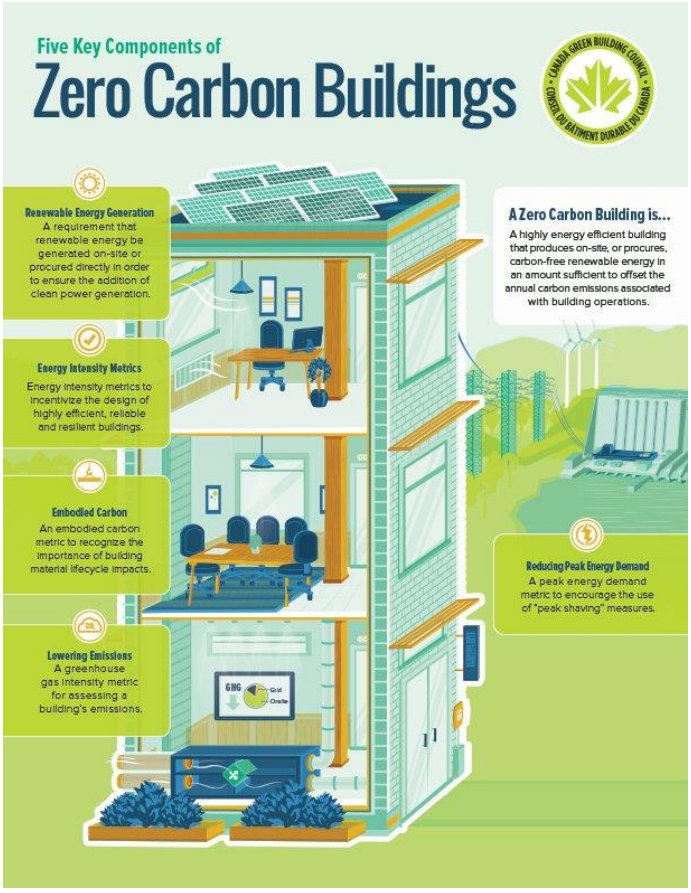
Ⅱ. 기후 협약 관련 주요 정책

Canada Green Building Council (CaGBC: 캐나다 녹색건물 협회)은 캐나다의 최초 Zero Carbon Building Standard (탄소 제로 건물 규격)을 제정하여 캐나다의 기후변화방지에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와 동시에 밴쿠버는 'Net Zero Energy/Net Zero Carbon' 정책을 시의 건물과 Vancouver Affordable Housing Authority (벤쿠버 주택 위원회)의 관리 건물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북미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케이스로서 캐나다의 타지역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Energy Efficiency Standards in Buildings (건물 에너지 효율 규격)은 2016년에 주택과 에너지 분야의 협력 TF로 시작되었다. 2017년에는 TF가 학계와의 공동 작업으로 ECE Framework Guidelines for Energy Efficiency Standards in Buildings (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위한 ECE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제곱미터 당 25kWh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목재를 비롯한 원자재 활용 기술 발전과 함께 향후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그린빌딩 의회에서 정의하는 탄소제로 빌딩이란,

1)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2) *에너지 효율 극대화*
3) *탄소배출량 수치 확인 가능*
4) *탄소배출량 최소화*
5) *단위시간 에너지 최대 사용량 수치 최소화*



▣ 친 환경 제품에 대한 정책 동향

2017년 1월 이후 약 6,000개의 글로벌 건설 자재가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 (EPDs: 친환경 제품군)으로 지정되었다. EPDs는 재화나 용역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표준 보고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EPDs중 3,500건이 EU 내에서 건축 기준을 정하는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350 (유럽 기술 표준화 위원회 350)의 승인을 받았다.

2016년 3월과 2017년 1월까지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가 EPDs 정책을 발표했고 아일랜드에서도 새로운 EPDs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000건이 넘는 EPDs 제품들을 승인하여(2017년 1월 기준) 해당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그 뒤를 영국, 터키, 이탈리아가 따랐다.

UL CERTIFIE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VERIFIED by SCS GLOBAL SERVICES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BASED ON LCA

GlobalEPD A VERIFIED ENVIRONMENTAL DECLARATION

EPD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을 분석하여 공개하는 것으로서 환경친화성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정보를 공개하는 형태의 라벨. 현재 자동차, 전자기기, 종이제품, 철강제품, 화학제품, 연료, 시멘트 등 여러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미국 농무부)의 BioPreferred(친환경) 프로그램은 2011년에 개시되었다. 지금까지 3,000여 품목이 USDA Biobased Product(미국 농무부 승인 바이오 제품) 승인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97가지의 식품도 포함된다. 목재, 종이, 포장재, 휴지와 같은 산림제품도 BioPreferred 제품군에 속해 있다. 품목 확대에 대한 법규가 준비 중에 있으며 플라스틱 합성수지, 화학 제품, 페인트와 코팅제, 원단가공, 발포고무, 기타 고무재료 등 여러 카테고리가 추가될 예정이다. 각 품목별로 최소한의 천연재료 함량을 정해서 실행될 예정이다.

USDA는 친환경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도 분석했다. 친환경 바이오 제품은 2013년에 미국 경제에서 U$3,690억과 400만개의 일자리를 담당하였는데, 2014년에는 U$3,930억과 420만 일자리로 확대되었다. 이중에서 임업 관련 제품 분야가 2014년에 U$933억과 110만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다.

USDA CERTIFIED BIOBASED PRODUCT PRODUCT 100% FP

Ⅱ. 기후 협약 관련 주요 정책

▣ 산림 벌채 방지 정책

천연림 감소를 2020년 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에 제로화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New York Declaration on Forest(뉴욕 산림 선언문)가 2014년 9월 UN 기후 정상회담에서 논의 되었다. 2016년 9월까지 40개국의 정부, 20개 지방자치 단체, 57개 글로벌기업, 16개 지역단체, 57개 NGO를 포함한 190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선언 2년 후까지 415개 기업이 참여하여 700건이 넘는 산림 벌채 반대 운동을 벌였다. 가장 많은 분야는 팜유(59%), 목재(53%), 대두(21%), 가축(12%) 순이었다. 제조업과 유통업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으며 생산자들도 선언데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내용으로 인해 정확한 효과의 수치화가 어렵고 아직 대부분의 기업들이 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2015년에 발표된 Amsterdam Declaration (암스테르담 선언문)은 산림 벌채에 유발하는 식품의 공급 제거라는 보다 강력한 목표를 세웠는데, 2020년까지 산림 벌채와 관련된 모든 식품 공급을 제로화 한다는 내용이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정부가 이 선언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산림벌채를 통하여 생산되는 팜유릐 EU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 공급원을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17년 4월 초 유럽연합(EU) 의회는 이른바 팜오일 결의안(정식 명칭은'팜오일과 열대우림 훼손에 관한 EU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 *핵심내용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산된 식물성 유지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바이오연료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2015년12월 발표된 '암스테르담 선언(Amsterdam Declaration)'의 후속 조치다.*
- *암스테르담 선언'은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리던 시기 유럽의 환경 선도국이라 할 수 있는 5개국(덴마크,독일,프랑스,영국,네덜란드)의 EU 의원이 암스테르담에 따로 모여 발표한 것으로, 2020년까지 유럽에서 100% 지속가능한 팜오일 상품 공급사슬을 구현해 불법 산림훼손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 산림인증 관련 정책

▣ 주요 인증 제도

산림인증제도란, 산림경영자가 산림인증의 기준 및 지표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실행하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 공익적인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 및 감시하는 비정부단체(NGO) 주도의 산림관리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경제 개발과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자원의 약탈과 파괴가 심해지고 있어 산림보호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제 3자의 평가를 통해 인증 함으로서 향후 산림관리가 더 적절히 이루어지게 만들자는 의도이다.

현재 국제적인 산림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구는 산림인증 프로그램(PEFC)과 산림관리협의회(FSC)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PEFC에 우리나라가 16년 6월에 공식 회원으로 등록되었다.

향후 PEFC 국제 상호 인정을 취득하게 되면 국내에서 인증제품을 수출할 때 국제 로고를 부착할 수 있고, 산림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받는 등의 부가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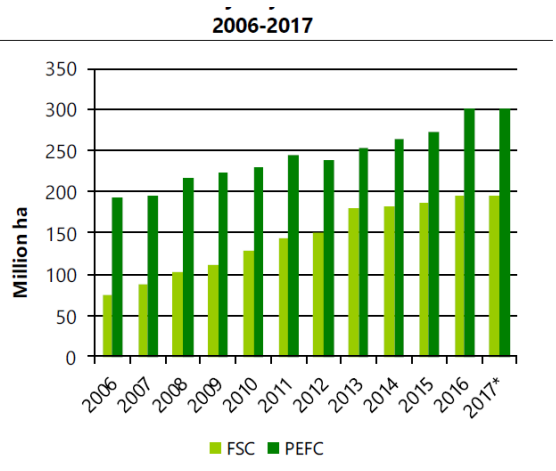
현재 인증된 총 산림 면적은 4억 3,200만ha인데, 2016년에 비해 300만 ha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세계 산림 인증 지역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UK Working Group

PEFC

가장 대표적인 산림인증 제도

주요 산림인증제도를 통한 산림인증 면적 추이 (`16~`17)



Note: *FSC data as of June 2017; PEFC data as of March 2017.
Sources: FSC, 2017a; PEFC, 2016b, 201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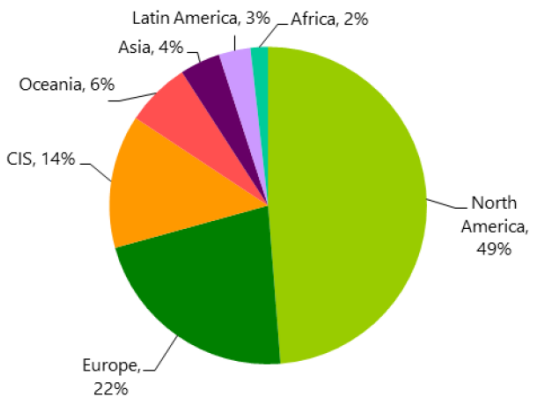
Ⅲ. 산림인증 관련 정책

산림인증 면적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은 산림 분야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 개 이상의 산림 인증을 보유한 국가가 28개국인데, 이 중 가장 많은 인증을 확보한 캐나다 사례를 통해 산림인증 활용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캐나다 산림 인증 사례

캐나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입증하는 도구로서 산림인증 획득을 강력히 권장하지만 한 가지의 특정 인증시스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캐나다 표준협회(CSA)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준, 산림경영위원회(FSC)의 기준, 지속가능 산림 조성회(SFI)의 기준 등이 모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인증한다고 인정된다.

대륙별 산림인증 현황 (`17)



Sources: FAO, 2010, 2015; FSC, 2017a; PEFC, 2017a, b

이러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캐나다는 현재 제 3자에 의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인증 산림지를 보유하고 있다. 인증은 캐나다의 포괄적이고 엄격한 산림경영법과 규정을 준수함을 의미하며,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시장에 보증하는 수단으로 인증제도를 활용한다.

2005년 12월 부로 캐나다는 CSA와 FSC, SFI 등의 인증 제도로 총 1억 1,980만 헥타르의 산림을 인증 받았다.

이 세 프로그램은 모두 독립적인 제 3의 기관의 감사를 요구하며, 인증 감사관은 산림사업의 계획과 공정, 시스템, 성과를 미리 규정된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이들 모두는 연간 사후 감사와 보고서 등의 감사결과의 일반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또한 해당지역 원주민의 문화와 전통의 보호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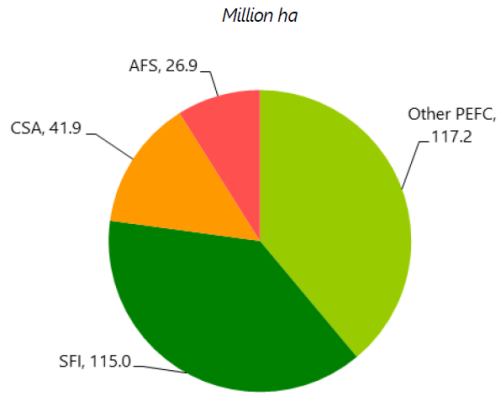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모두 벌채지에서 재조림이 이루어지고, 불법 벌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산림경영의 기본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모두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토양, 수질 자원의 유지, 벌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전체적인 지속 가능한 산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캐나다의 많은 기업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다. ISO 14001은 산림만을 위한 기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지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경영 시스템이다.

캐나다의 최대의 산림 협회 중 하나인 캐나다 임산물 협회(FPAC)는 회원자격 조건으로 기업이 자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산림을 CSA, FSC, SFI 등의 기관으로 부터 인증 받을 것을 요구하는 세계 최초의 무역협회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캐나다에서의 노력을 반증해주는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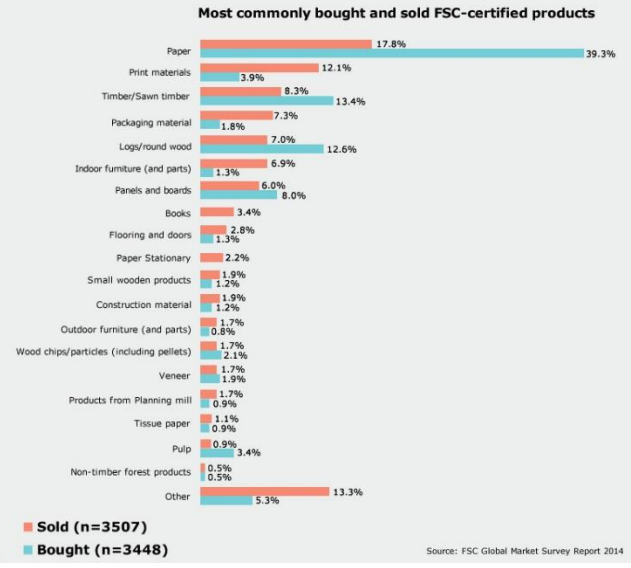
이러한 캐나다의 노력으로, PEFC의 CSA와 SFI 기준에 의한 캐나다 내 인증은 이제 세계 PEFC 인증의 55퍼센트를 차지한다. 또한, 캐나다의 FSC 인증 산림면적은 전 세계 FSC 인증의 약 25%를 차지한다.

국제 산림 인증별 현황 (`17)



Notes: "Other PEFC" consists of PEFC national certified and PEFC-endorsed schemes other than the top three; Sustainable Forest Initiative (SFI) (PEFC-endorsed since 2005); CSA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PEFC-endorsed since 2008); Australian Forestry Standard (AFS) (PEFC-endorsed since 2004).

Sources: PEFC, 2017b; SFI, 2017; MTCC, 2017.



목제품 중 FSC 인증을 받은 임산물 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구매되어지는 제품은 제지임

Contact *Us…*



발행처 : 한국임업진흥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Tel. 1600-3248)
홈페이지 : www.kofpi.or.kr
해외산림정보서비스 : ofiis.kofpi.or.kr
편집·디자인 : Oceania Consulting Group
문의처 : 소순진 (soimare@kofpi.or.kr)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Any use of this material without specific permission of Kofpi & Oceania Consulting Group is strictly prohibited